

# 레슬리 알렌(Leslie Allen) 박사, 에스겔, 강의 19, 이스라엘의 다시 일어나는 비전, 한 민족과 한 왕의 표징 에스겔 37:1-28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이것은 19회기, 이스라엘의 다시 일어나는 비전, 한 민족과 한 왕의 표징입니다. 에스겔 37:1-28.

이제 에스겔 37장에 이르면 그 안에서 환상과 상징적 행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환상과 상징적 행동의 순서는 이 책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적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그가 수행할 상징적인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진 성전을 떠나는 환상과 더욱 상징적인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33장부터 37장까지를 책의 5부의 끝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환상과 상징적 행동이 에스겔의 구원 메시지의 절정의 전개로 이 다섯 번째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환상과 관련되고 해석된 부분은 이 책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임에 틀림없으며, 아마도 실제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일한 구절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영적인 뼈, 뼈, 마른 뼈에 의해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두 가지 이전 환상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환상은 심판의 선지자가 되라는 에스겔의 부르심과 일치하는 심판의 신현입니다.

8장부터 11장까지에서 그의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의 최악된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단계적으로 더럽혀진 성전과 성을 멸망에 버리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에스겔의 전망, 에스겔을 통해 주어진 이스라엘의 새

생명에 대한 전망에 대한 장대하고 긍정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책 초반부에서 에스겔의 메시지는 확장된 은유와 해석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와 그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셨는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 경우 그 환상은 1절부터 10절까지 확장된 은유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 그 은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11절을 봐야 할 이유는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특정한 비유가 나오는 이유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과 후반절을 보면 포로들이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우리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인 시작 구절이며, 전체 구절의 출발점입니다.

독자들은 왜 환상이 마른 뼈에 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유배자들은 유배 생활을 괴로운 경험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포로 이전 유다의 좋았던 시절에 비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삶의 수준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애통의 기도는 때때로 죽음을 비유로 사용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8편 5절에 “나는 죽은 자 가운데 버림받은 자 같으니, 살해되어 무덤 속에 누운 자 같으니, 주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자 같으니이다. 따라서 이 환상은 유배자들의 애도, 특히 마른 뼈, 즉 죽음에 대한 애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망명자들의 황폐함과 절망에 공감하지만, 새로운 희망, 다시 한 번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 가상의 죽음으로의 변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넘어선다. 우선, 선지자는 자기 머리에 가해지는 압력, 즉 주님의 손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자주 읽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자주 느꼈던 신비한 압력을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단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것은 1절부터 11절까지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게 될 환상과 연관되어 있고, 12절부터 13절까지 포로들에게 전할 공개적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환상에서 에스겔은 넓은 골짜기로 끌려갑니다. 그가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고 1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3장 22절부터 23장까지에서 겪었던 것과 매우 유사한 경험, 즉 우리가 거기서 기록한 짧은 환상입니다. 같은 것이든 아니든 이번에는 뼈가 가득하고 사람의 뼈가 흩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절 끝에 보니 뼈가 가득하더라.

그곳은 분명 오래된 전쟁터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9절에서 암시되는데, 그 뼈는 죽임을 당한 이 뼈와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군인들은 죽었으나 그들의 시체는 이제 맹금류와 들짐승들에 의해 훼손되어 마른 뼈들만이 남아 살점이 흩어지고 흩어졌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멸성인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니요. 뼈는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사라졌습니다. 오래전에 그들의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지만, 선지자는 너무 예의 바르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는 공을 다시 하나님의 코트로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맏소사,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주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그리 멀리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에스겔은 11절에서 포로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 가졌던 것과 동일한 태도를 환상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치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뼈들에게 전하라는 메시지를 주어 공을 다시 에스겔에게 던지십니다. 4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지금은 귀가 없도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라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뼈들이 다시 한 번 살아나고,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새번역역에는

호흡이나 호흡이나 바람이나 영이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면 너희가 살리라라는 각주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나 바람이나 영을 넣어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 불가능하고 기적적인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뼈들은 말하자면 시간이 거꾸로 흘러갈 것입니다.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 뼈에 힘줄과 살과 피부가 차근차근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흡을 주셔서 소생의 과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메시지를 뼈에 전합니다. 이는 확실히 어떤 선지자도 전할 수 없었던 가장 이상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글쎄,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작동합니다. 우선, 갑자기 소음이 나고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가 뼈와 뼈가 맞물려 결합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뼈가 뼈대로 재정렬될 때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 다음 여러 부분, 즉 힘줄, 살, 피부를 다시 조립합니다. 내가 보니 그 위에 힘줄이 있고 살이 붙어 있고 피부가 덮였더라.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신은 몸이 있지만 죽은 몸이고 여전히 살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다음 단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단한 성과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호흡이나 바람이나 영에게 예언하십시오. 인생아 너는 예언하라 생기나 바람이나 영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내가 그의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서서 큰 무리가 되니라. 또는 NIV가 더 잘 말했듯이, 우리는 환상이 진행되는 동안 전쟁터와 전투에서 죽은 군인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네 바람에서 생기를 불러와서 이 죽은 뼈들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기적의 마지막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바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북, 남, 동, 서의 네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렇게 기도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들 모두가 이 거대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결국 이루어지고, 기적은 결국 이루어지는데, 두 단계로 나뉘는데 아마도 우리는 다음에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뼈에 활력을 주는 이중 과정인데, 그게 작업의 어려움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가 이 두 단계를 밟을 수 있었던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의 기적적인 능력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반영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먼저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두 번째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흙 형상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창조자가 일하고 계시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창조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생명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환상은 선지자의 역할, 즉 그가 실현될 구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하나님의 필수 대리인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환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의 일반적인 예언, 긍정적인 예언에서도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36장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이 극적인 환상이 그러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구절은 요한복음 20장과 22절입니다. 이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에스겔 37장의 환상에서 일어난 일을 회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 호흡이나 영을 넣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암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해당한 자의 호흡에 대한 암시이며, 14절의 해석에 대한 암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나는 아직 14절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분명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에스겔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보도록 초대받습니다.

예수께서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하느님의 백성의 묘사에 맞춰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성서의 다른 곳에서도 또 다른 암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방문한 유대인 회당에서 기독교 복음에 대한 저항을 발견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신처럼 완강한 유대인이 예수를 기대되는 메시아로 믿었다면 왜 유대인 회중은 그렇게 하려고 서두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사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라는 그의 특별한 부르심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이방인들, 특히 정기적으로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소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서 9-11장에서 이방인들이 다가와 반응을 보이면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이제 이방인들의 개종을 본받을 차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개종하면 시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감람나무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 순간, 유대인 가지들은 이방인 가지들이 감람나무에 접붙여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느 날 육적 유대인 지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다시 접붙여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15장에서 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을 버린 것이 이방인의 화목이 되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죽음으로부터의 삶. 나는 바울이 에스겔 1-14장을 염두에 두었고 에스겔의 환상을 단서로, 언젠가 그의 동료 유대인들이 빛을 보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를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의 마음 속에 가지고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자, 이제 우리는 11-14절의 해석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직 이 환상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죽을 사람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 낼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영을 네 속에 두어 네가 살게 하고 너를 네 땅에 두리니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고 행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애통함을 인정하시고 여기에서 그들이 절망 중에 드리는 거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글쎄요, 기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식은 여기서 응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고국을 떠나 이곳에서 망명하여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편의 메시지가 포로의 상황에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나오는 애도의 기도는 죽음과도 같은 위기 상황을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새로움.

그리고 시편 30편 2절부터 3절과 같이 이를 증명하는 감사의 노래가 시편에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저를 낮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내 영혼을 지하세계인 스올 에서 데려오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유배자들을 위해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는데, 그들의 절망적인 비탄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고국으로 다시 데려가서 살게 하심으로써 유배 생활에서 죽음과 같은 상태를 되돌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고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구원의 반전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배지는 묘지로 여겨진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은 환상 자체의 전장 그림보다는 죽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시편의 언어와 더 일치합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시편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실 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장의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새 영이 나의 영이 될 것이라고 36장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나 바람이나 영이 나의 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New RSV에서 호흡이라고 말할 때 대체 번역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 동일한 약속이 36절과 27절에서도 새 영, 곧 하나님의 영의 선물로 주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은사는 37장에서와 같이 이 구절의 땅으로의 귀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37장의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문학 단위처럼 읽혀집니다. 과연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비전에서 상징적 행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순서적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는 전체적인 문학적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두 부분은 이 시점에서 매우 밀접하게 함께 속해 있습니다. 에스겔은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 상징적인 행동이 많이 등장했는데, 모두 부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긍정적이다. 그는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글을 쓰고 손에 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두 막대기의 복제품을 가져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그 중의 하나이며 유다 등이라고 합니다. 이는 남왕국을 뜻합니다.



유다와 남왕국에서 유다와 연합한 다른 지파들. 그런데 또 다른 막대기가 있었고, 그는 그 막대기에 요셉과 같은 것을 썼습니다. 자,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두 지파의 이름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북쪽 왕국의 가장 큰 두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쪽 왕국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분열되고 오랫동안 분열되었으며 북쪽 왕국은 오래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하라는 명령은 그것들을 손에 쥐라는 것인데, 그 모양은 막대기 하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막대기 하나처럼 보일 뿐입니다. 20절에서 여전히 막대기, 즉 분리된 막대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여전히 두 막대기입니다.

하지만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처럼 보이고 그것이 상징적 행동의 핵심입니다. 남북의 재결합.

예레미야는 그렇게 강하게 말했고, 에스겔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남쪽이 북쪽이 아닌 옛 열두 지파의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은 이 상징적인 행동을 공개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상징적 행동의 본질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주의를 끌고 자기가 말하려는 내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상징적 행동은 통일된 이스라엘, 즉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이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제정된 은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옛 이상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21절과 22절 시작 부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갔던 나라들 중에서 데려다가 모아들이고 매 분기마다 그들을 자기 땅으로 데려오라.

내가 그 땅 이스라엘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왕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하리하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래서 한 나라가 됩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국에 대한 언급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이 막대기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상이고, 왕이 가지고 다니는 홀, 즉 왕홀의 상징적 실현 또는 제정입니다. 그리하여 한 왕이 하나의 홀을 들고 하나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나라에서 한 왕으로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이 막대기가 실제로 왕실의 상징인 왕홀을 상징한다는 의미를 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의 전통적인 임무 중 하나는 백성의 예배와 생활 방식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따르면 이 한 왕 아래서 그들이 사는 방식, 곧 합당한 방식으로 사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23절, 그들은 다시는 그 우상들과 가증한 것과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한 나라, 한 왕을 통하여, 나는 그들이 빠져 있는 모든 배도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정부를 대표할 이 왕의 사업을 통해 실제로 유배자들이 그 땅으로 돌아갈 때 질서 있고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예배와 생활 방식의 수호자로서 이스라엘의 죄악된 길은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하나님과 사람의 화합은 양면적인 언약공식의 실현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언약의 이상이 놀랍고 완벽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36~28장에서 그 언약의 공식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따라서 37장에 이르면 사실 36장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36장과 37장 사이에는 다른 유사점이 있습니다.

하반절, 24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삼가 지키리라. 우리는 그것을 은사, 즉 새 영과 하나님의 영의 은사로 받았습니다. 27절, 내가 너희로 내 율례를 따르게 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 땅에 거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앞서 36절과 28절에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주하리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37에서 36의 반향을 얻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한 나라의 상징적 행위, 더 나아가 왕권의 행위가 37장의 끝 부분에 펼쳐지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앞서 37장에서 우리가 36장과의 연결을 넘기면서 주목을 끌었던 그 환상을 되돌아보면 나는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안에 두리라. 이는 37절에서 은유적으로 환상적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37장의 첫 번째 부분은 36장의 내용에 대해 논평하고 더 설명하고 싶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36장과 37장 사이에 유기적인 통일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장 모두에서 자료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부터 28까지입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리라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거기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겠다. 이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언약이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고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내 처소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나라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줄 알게 되리라.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단어를 보셨나요?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그리고 26절에서도 일치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동일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히 지속되겠다는 언약.

그래서 거기에는 스트레스가 있고 키워드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련의 영원하거나 영원한 약속. 그 땅에 살면서 다윗 왕조를 갖고 영원한 언약을 누리며 하나님의 새 성소에서 영원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이상은 양면적인 언약 공식의 성취로 환영받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몇 구절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우리가 40장에서 48장까지 읽게 될 내용의 주제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성전, 언약, 왕, 땅에 대한 언급은 모두 40장에서 48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논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약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말하다. 우리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환상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묘사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했듯이 40대 48의 의제는 다음에 나올 자료에 대한 준비로서 여기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8세와 39세는 어떻습니까? 음, 이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논의할 장들입니다.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이것은 19회기, 이스라엘의 다시 일어나는 비전, 한 민족과 한 왕의 표징입니다. 에스겔 37:1-28.